

아프가니스탄의 정치군사적 현황과 전망[†]

- 3층의 갈등구조 -

이웅현 *

- I. 기시감(déjà vu)
- II. 총성 없는 전쟁: 내전, 소련 침공의 유산
- III. 파슈툰 전쟁: 아프가니스탄-텔레반-파키스탄
- IV.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국가 건설(state building)'을 위하여(?)
- V. 결론 및 전망

Abstract

Afghanistan in the Three-layered War

- The Present and Prospect -

The violent conflict deployed in present Afghanistan has multi-layered structure interlaced with legacies of American invasion in 2001, the Soviet invasion in 1970s, and the British interference a century ago. The first one is the civil war, which was resulted by the Afghan communists and USSR's intervention in 1970s. The second part is the ambiguous borderline set up by the Great Britai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last one is the structure of conflict, 'World War', resulted as the US with NATO allies is conducting. These conflicts are tightly interlinked with each other, which became the obstacle for predicting the future of Afghanistan war. To resolve this 'Afghanistan problem' which various political forces are intricately complicated and struggling, it is needed to take comprehensive approach from the long-term viewpoint.

Key Words : Afghanistan, Karzai, Pashtun, Taliban, USA, War

* 고려대학교 강사, 정치학 박사, zvezda@korea.ac.kr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14일 중앙아시아학회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아프가니스탄: 문명사적 의의와 전망」(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I. 기사감(déjà vu)

기원전 334년 봄 페르시아제국을 침공하여 3년 만에 이 지역을 평정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도전한 것은 대략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에 해당하는 박트리아와 소그디아의 저항세력이었다. 게릴라전보다는 재래식 전쟁에서 월등한 전력을 지니고 있었고, 투석기와 같은 당시로서는 고도의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알렉산더의 대군은 이 지역을 신속하게 평정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력에 놀라는 한편, ‘테러리스트들’을 후원하여 제국의 정책을 잠식하는 이 지역의 군벌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했지만, 혹심한 기후, 바위투성이의 지형, 맹렬한 지역의 충성심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혐오하는 지역민들 때문에 소모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알렉산더는 피와 함께 시작한 이 박트리아 침공 이후 유화정책과 살육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일시적인 정복에 성공했지만, 그가 사망한 후 주둔군 2만 명은 지역민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지역에서 축출되었고,¹⁾ 제국의 아프가니스탄 영속지배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그로부터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842년 엘핀스톤(Lord Elphinstone) 장군이 이끄는 16,000명의 영국군은 아프가니스탄을 공략했다가, 전원이 사망하고 군의관 윌리엄 브라이든(William Brydon) 박사만이 홀로 탈출, 잘랄라바드(Jalalabad)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이후 영국은 1849년, 1850년, 1851년 지속적으로 보복공격을 감행했지만 아프간인들의 저항에 직면, 패퇴를 거듭했다. 1860년에는 12,500명의 병력으로 공격을 시도했고, 1878년에는 산긴(Sangin) 대회전을 감행했지만 모두 실패의 쓴 맛을 보아야 했다.²⁾ 1893년에

1) Frank L. Holt, *Into the Land of Bones: Alexander the Great in Afghanist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pp. 1109-1110.

2) 제2차 영국-아프가니스탄 전쟁(1878~1881)이 영국의 패배로 끝난 후 귀국한 프레드릭 로버츠(Frederick Roberts) 장군은 런던에서 대아프가니스탄 정책이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경고했다, “아프가니스탄을 두려워하지는 말자. 그러나 우리[영국인들]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이 나라를 가능한 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우리의 자존심(*amour propre*)에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아프간인들이 우리와 덜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를 덜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Stephen Tanner, *Afghanistan: A*

는 아프가니스탄의 아미르 압둘 라만(Abdur Rahman)이 대영 지하드를 선포했다.³⁾ 영국인들은 이 지역을 통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빠져나오지도 못했다.⁴⁾ 결국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직접지배를 포기하는 대신 1893년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동쪽 일부를 잘라내어 영국령 인도로 편입했다. 인더스 강에서 하이버패스 서쪽 150~200킬로미터 지점으로 국경선이 이동하면서(이른바 듀란드 라인<Durand Line>) 아프가니스탄의 영토는 줄어들었다.⁵⁾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의 무덤’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된 이 두 역사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1979년 12월 이번에는 사회주의 제국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로써 서방의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⁶⁾ 러시아인들은 2,300년 전 마케도니아인의 치욕과 한 세기 전 영국인들의 좌절을 진지하게 되씹어 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수렁’에 대한 공포심은 가지고 있었다. 1978년 4월의 쿠데타로 집권한 아프가니스탄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개입 요청을 1년 이상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을 구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3-4주 만에 상황을 끝낼 것”⁷⁾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침공을 감행했다.

1970년대 말 자국 생산 천연가스의 8~9%에 달하는 3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가스전(자르두크<Jarkuduk>, 셰베르간<Sheberghan>, 호자-구게르닥<Hoja-Gugerdag>)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던 소련으로서는 ‘제국의 위용’을 추구했던 그 이전의 제국들과 달리 특히 ‘경제적 동기’에 민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 개입의 결정과 전쟁과정에서 러시아인들이

Military History from Alexander the Great to the Fall of the Taliban (Cambridge: DA Capo Press, 2002), p. 217.

3) Stephen Grey, “Afghanistan: The fog of war”, *New Statesman*, 17 August 2009, p. 18.

4) David Ignatius, “Learning about buying Afghanistan”, *The Korea Herald*, September 25, 2009, p. 12.

5) 이웅현 역,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서울: 전략과문화, 2007년), p. 116.

6)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을 무렵인 1979년 5월 카불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보고서는 “소련은 베트남형(型)의 뒷에 걸려드는 것은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명쾌하게 단정하고 있었다. KABUL 3626, May 6, 1979, *Documents From the U.S. Espionage Den*, Vol. 29, p. 91; 이웅현, 『소련의 아프간 전쟁』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년), pp. 171-172.

7) Anatoly Dobrynin, *In Confidence: Moscow's Ambassador to America's Six Cold War Presidents* (New York: Random House, 1995), p. 440.

과거의 두 제국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속한 괴뢰정권의 수립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제도이전(institutional transfers)을 위한 노력이었다. 현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 정체 수립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소련은, 정치체제는 물론 정보기관, 경제체제, 군사적인 편제와 전투기술 등의 모든 국가 통치분야에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스타일을 아프가니스탄에 전수하려 했다.⁸⁾

그러나 결국 소련은 현재의 미국이 고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동부(특히 헬만드지역)의 무자헤딘 전사들과의 싸움에서 피로해졌고, 고르바초프는 소련공산당 서기장 취임 2개월 만인 1985년 5월, 자이찌프(Zaitsev) 장군을 아프가니스탄으로 급파했다. 고르바초프는 비밀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장군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평정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테러리스트들’이 잠입해 들어오는 파키스탄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는 보고를 들어야 했다.⁹⁾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소련은 1989년 철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쟁’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소련군이 전투를 수행하면서 100만여 명의 아프간인들이 살해되었지만, 전쟁의 말기에는 소련군에 저항하는 아프간 전사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났다.¹⁰⁾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사들과의 이 싸움에서 15,000여 명의 젊은이들의 목숨과 더불어 제국의 ‘위용’을 잃었고, 결국 2년 뒤 ‘제국’은 붕괴되었다.¹¹⁾

소련 제국이 붕괴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으로 인한 폭력과 파괴의 일상화가 진행된 10년 동안, 이미 198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던 미국은 사라진 냉전의 경쟁상대는 물론 경쟁상대의 궤멸에 이용했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억과 흥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세 차례나 제국의 무덤이 되었던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역사의 교훈까지도 잊고 있었다.

8) Anton Oleinik, “Lessons of Russian in Afghanistan”, *Society*, Vol. 45 (2008), p. 289.

9) Victor Sebestyen, “How not to end a war”, *New Statesman*, 17 August 2009, p. 30.

10) Thomas H. Johnson and M. Chris Mason, “Understanding the Taliban and Insurgency in Afghanistan”, *Orbis*, Vol. 51, No. 1 (Winter 2007), p. 88.

11) 이용현, 『소련의 아프간 전쟁』, p. i.

2001년 9월 11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정권의 비호하에 있던 알카에다의 대미 테러에 대한 반격으로 10월 7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기시감과 역사의 교훈이 미국의 ‘명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동정심에 의해 압도된 가운데 시작되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적극적 동조국 영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탈레반 정권을 지지하던 파키스탄은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미국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인도로 이전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미국의 전진기지가 될 것을 자임했고,¹²⁾ 심지어 이란도 와하비즘(Wahhabism)을 신봉하는 적들을 패배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지지했다. 과거 세 제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달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거의 일체감을 가지고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비인도적 전쟁의 기억을 아직 간직하고 있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들만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실수가 이제는 미국에 의해서 재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을 뿐이었다.¹³⁾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강대국의 침공 사례와 그 결과만을 고려하면, 베트남전의 교훈을 망각한 미국은 네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경험적 전망을 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현재 미국과 나토연합군이 전장으로 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되고 있는 폭력과 갈등은 2001년 미국의 침공은 물론, 가까이는 1970년대 소련의 침공 그리고 멀리는 한 세기 전 영국의 개입의 유산들이 얽힌 중층(重層)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중층의 갈등(분쟁)구조는 세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내전 또는

12)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대통령은 2001년 9월 12일 라왈핀디(Rawalpindi) 근교 차클랄라(Chaklala)의 합동참모본부 사령부에서 “미국은 상처 입은 곰처럼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것”이라며 미국의 협조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군부를 설득했다. Ahmed Rashid, *Descent into Chaos: The U.S. and the Disaster in Pakistan, Afghanistan, and Central Asia* (New York: Penguin Books, 2008), p. 27.

13) Tariq Ali, “Afghanistan: Mirage of the Good War”, *New Left Review*, Vol. 50 (March/April 2008), pp. 5-6.

14) 적어도 현재까지 미국에게 패배의 전망은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종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Brian Duffy, “Spiraling Into a Lower Part of Hell”, *U. S. News & World Report*, June 12, 2006, p. 10.

통합을 향한 갈등이다.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공산주의자들이 급진적으로 추진한 근대화 정책과 소련의 개입이 초래한 이 갈등은 1989년 소련의 철군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격화되다가 탈레반의 축출과 카르자이 정권의 수립으로 폭력성을 감추었지만, 인종적 경계선을 중심으로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아프가니스탄의 영구 지배를 포기한 영국이 남아시아의 식민지에서 물러나면서 그어놓은 불분명한 국경선과 미국이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쫓아내면서 산출된 갈등구조이다. 즉 아프가니스탄-탈레반(파슈툰)-파키스탄의 지역전쟁(regional warfare) 또는 탈식민주의 시대의 지역패권전쟁이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연합군이 수행 중인 ‘세계 전쟁’이다. 초기의 전쟁목표가 ‘대테러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국가건설’로 변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언제 종결될 지 확인할 수 없는 장기전에 돌입해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외적 안전보장, 거시경제적 안정, 사회질서와 치안의 확보가 전제되거나 혹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이 전쟁은 앞의 두 갈등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II. 총성 없는 전쟁: 내전, 소련 침공의 유산

아프가니스탄은 1919년 독립 주권국가가 되었고, 1973년 다우드(Daoud)의 쿠데타를 통해 공화정으로 전환했다. 세인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아프가니스탄을 냉전기 국제사회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그 이후 현재까지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소련의 침공 이후 1980년대에 전개된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의 성전(holy war)은 이 비극의 제1막을 구성한다. 이란과 파키스탄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이주했고, 국가로서의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폐허가 되었다. 반소 항전의 전사들은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는 미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지원을 받아 소련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프간인’이라는 공통의 정체성(Afghan-ness)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은 물질적(무기와 자금), 인종적, 이념적

선에 의해 구별되고 분열하기 시작했다. 정복자는 패퇴하고, 냉전의 종식 이후 아예 지구상에서 소멸해 버렸지만, 1992년 정복자가 남겨놓은 나지불라(Najibullah) 정권을 붕괴시킨 전직 반군들이 비극 제2막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제1막의 비극성에 뒤지지 않는 참혹한 살상, 약탈, 파괴행위를 전개했다.¹⁵⁾

그리고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혜성과 같이 등장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거의 전 국토를 장악하면서 폭력의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파키스탄군 정보기관(ISI)의 후원하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입하여,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공포정치를 실시한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은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는 이전에 없던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내전이 아닌 통치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국토 북쪽으로 도주한 전직 반군들과의 싸움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¹⁶⁾ 이것이 제3막이었다.¹⁷⁾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제4막의 주역을 맡으면서 폭력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을 위한 전쟁’은 1980년대의 무자헤딘 각파의 경쟁적 대소 항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¹⁸⁾ 특히 소련 철군 이후인 1990년대 카불 장악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전 과정에서 지역적, 인종적 경계선이

15)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에 대한 군사원조의 주요 수혜자였던 헤크마티야르(Gulbuddin Hekmatyar)는 1993년 이슬라마바드 협정(Islamabad Accord)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수상이 되었고, 1994년부터 1995년 초까지 거의 매일같이 카불에 포격을 가하여 자국민을 약 25,000명 살해했다. Holt, *Into the Land of Bones*, p. 6, 176n.

16) 1996년 9월 카불을 접수한 탈레반은 1997년 5월 북부동맹(Northern Alliance)의 말리크 팔라완(Malik Pahlawan) 장군의 투항을 계기로 마자르-이 샤리프(Mazar-i Sharif)를 공격했으나, 주로 하자라(Hazara)인들로 구성된 자발적 저항세력에 직면했고, 하자라인들에 의해서 최소한 2천여 명의 탈레반이 체포, 처형되었다. 1998년 8월 탈레반은 마침내 마자르를 점령하고, 1년 전의 치욕에 대한 보복으로 역시 2천여 명의 하자라인들을 학살했다. Iesha Singh, “Exploring issues of violence within the recent context of the Hazarajat, Afghani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0, No. 2 (2001), pp. 201-202, 207.

17) Fatima Ayub and Sari Kouvo, “Righting the course?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war on terror and the future of Afghanistan”, *International Affairs*, Vol. 84, No. 4 (2008), pp. 642-643.

18)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련은 침공 직전인 1979년 3월부터 할크파의 아프가니스탄인민민주당(PDPA) 정권에게 정치사회적인 대통합을 내전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브레즈네프는 타라키에게 “당과 국가의 지도부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 급선무이며...이 전선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 정치적인 조직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ЦХСД(러시아 현대문서관), Фонд 89, Пер. 14, Док. 25, pp. 1-2. 자신들의 직접적인 무력개입으로 정치세력의 균열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폭력성을 띠고 가시화되기 시작했다.¹⁹⁾

탈레반의 등장 이후 인근 이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으로 도주하거나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웅거하고 있던 전직 게릴라들(군벌)은 탈레반 정권의 붕괴와 함께 대체로 4개의 무장한 지역 세력으로 재편되어 정권경쟁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가스가 풍부하고 비교적 산업화된 북부 즉,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는 우즈베크인 군벌 도스툼 세력이 마자르-이-샤리프를 장악했다. 도스툼은 한때 공산주의자들 및 탈레반과도 연대했지만, 탈레반 붕괴 이후 NATO와 손을 잡았고, 2001년 12월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승인하에 2~3천 명의 탈레반과 아랍인 죄수들을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²⁰⁾ 아프가니스탄의 북동쪽 즉, 에메랄드, 청금석(lapis lazuli), 아편 등이 풍부한 지역에서 타지크인들을 이끌고 있던 아흐메드 샤 마수드(Ahmed Sha Masoud)는 2001년 9월 9일 사망할 때까지 카불과 타시켄트를 연결하는 살랑 패스를 장악하고 있었다. 마수드는 부르하누딘 람바니(Burhanuddin Rabani)의 이슬람 결사(Jamaat-i-Islami) 병력의 지도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조를 받고 있던 이슬람 지도자 사야프(Abd al-Rabb Sayyaf)와도 협력하고 있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차 탈레반 쪽으로 기울면서, 탈레반 집권기에는 반(半)독립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²¹⁾

19) 이 시기 대소 항전의 게릴라 그룹은 아프가니스탄의 인종적 분포에 따라 분열(polarization)되었다. 카불의 파르참과 연대한 타지크인 세력(람바니, 마수드), 와흐다트 당(Hizb-i Wahdat)을 중심으로 결집한 하자라인 세력, 라시드 도스툼(Rashid Dostum)의 민병대를 중심으로 한 우즈베크인 세력 그리고 파슈툰인이 주축이 된 헤크마티야르 그룹 등. David B. Edwards, *Before Taliban: Genealogies of the Afghan Jiha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 289. 아프가니스탄의 인종적 분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공식적인 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3,200만 인구 가운데 파슈툰인 44%, 타지크인 25%, 하자라인 10%, 우즈베크인 8%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노르웨이의 WAK Foundation이 1999년까지 6년 동안 조사한 결과인 파슈툰인 63%, 타지크인 12%, 우즈베크인 9%, 하자라인 6%가 정확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Ayub and Kouvo, "Righting the course?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war on terror and the future of Afghanistan", p. 642; Ali, "Afghanistan: Mirage of the Good War", p. 10. 이밖에 소수인종으로 발루치인, 투르크멘인, 아이마크(Aimak)인 등이 있다. "Afghanistan: facing up to the facts and figures", *New Statesman*, 17 August 2009, p. 28-29.

20) 도스툼은 2005년 카르자이 정권에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기용되었으며, 2008년 2월 참모총장직을 박탈당한 후 터키로 망명했다가, 2009년 8월 아프가니스탄 대선을 앞두고 카르자이와의 연대를 위해 다시 셰베르간(Shebergan)에 모습을 나타냈다.

한때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고대도시 헤라트가 위치한 서쪽 이란과의 접경지역에는 시아파 이스마일 칸(Ismail Khan)이 테헤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1996년 탈레반의 카불 장악 시 헤라트가 무기력하게 함락되면서 이스마일은 탈레반에 의해 투옥되었고, 2000년 3월 탈출에 성공하여 이란으로 망명해 있다가, 2001년 10월 NATO군의 지원하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남쪽의 파슈툰 지역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대소련 항전과 내전을 거치면서 양귀비 재배가 성행했는데, 1990년대 초까지 수니파 3개 세력(탈레반, 마수드의 그룹, 헤크마티야르의 그룹)이 혼재하고 있다가, 카불에서 축출된 파슈툰 탈레반의 은거지로 변화했다.²²⁾

이들 가운데 친탈레반적인 헤크마티야르의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벌들이 탈레반 축출 작전에 가담함으로써, 전후 새로이 수립될 정부에서 각각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광범위하고, 다인종적이며,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자유 민주주의 정부를 건설하려는 구상은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01년 12월에 시작된 이른바 본(Bonn) 프로세스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살육하던 파벌들이 미국 주도의 군사개입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세력이라는 이유로 참여했다. 안정과 국가건설을 위해 아름답지 못한 과거를 지닌 개인과 파벌들이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파벌정치의 만연과 엘리트주의의 시스템이 강화된 셈이었다.²³⁾

우선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선출된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부터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그 정통성을 의심할 만한 인물이었다. 과도정부의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잘메이 할릴자드(Zalmay Khalilzad)와 함께 미국 석유가스기업

21) Ali, "Afghanistan: Mirage of the Good War", p. 8; '판쥐쉐리의 사자(Lion of Panjsheri)'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면서 카리스마적 군사지도자로서의 서방세계에서 호감을 받던 마수드 역시 아프가니스탄 동쪽 살육의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5만 명의 카불시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992-94년의 카불 폭격 당시, 그 역시 주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February 2006, p. 68.

22) Ali, "Afghanistan: Mirage of the Good War," pp. 8-10.

23) Ayub and Kouvo, "Righting the course?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war on terror and the future of Afghanistan," p. 650.

을 위해서 일했던 카르자이²⁴⁾는 듀라니(Durrani) 파슈툰인이었지만, 1992~1995년 랍바니 정권에서 외무차관으로 재직했고, 랍바니에 대한 파슈툰의 대안으로 탈레반을 지지했던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시작되면서 미군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는데, 유명한 파슈툰족 군사지도자 압둘 하크(Abdul Haq)가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진입했다가 탈레반에 의해 체포, 처형되자 그를 대신하여 파슈툰인의 대안으로 떠오른 인물이었다.²⁵⁾ 즉 미국이 ‘찾아낸’ 인물이었던 것이다.²⁶⁾

카르자이에게는 군벌들이 내세우는 무장투쟁 경험도 없었고 또 그는 아프가니스탄 인구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파슈툰족 출신이기는 했지만, 탈레반의 주축을 이루는 길자이 파슈툰과 경쟁관계에 있는 듀라니 파슈툰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통합의 상징’으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카르자이는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북부동맹이 시도한 세 차례의 쿠데타 기도에 직면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월 제헌 로야 지르가(loya jirga)가 승인한 새로운 헌법은 분권화된 정치의 역사를 지닌 아프가니스탄에는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중앙집권적 안정이 없으면 아프가니스탄은 인종적 라인에 의해서 다시 분할될 것이라는 점이 대통령제를 주장한 자들의 논거였지만, 카불 중심의 대통령제로 인해 지방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희미해지면서 오히려 중앙과 지방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다.²⁷⁾ 실제로 카르자이는 자신의 인척과

24) 할릴자드는 중앙아시아지역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구상하던 쉐르가스(CentGas)의 고문으로, 카르자이는 유노칼(Unocal)의 고문으로 일했다. Chalmers Johnson, *The Sorrows of Empi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4), p. 178; Ali, “Afghanistan: Mirage of the Good War”, p. 11. 이 때문에 카스피해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이르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미국계 석유기업들의 이권을 위해서 9.11테러가 발생하기 2개월 전부터 침공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Johnson, *The Sorrows of Empire*, p. 176; John Pilger, “America’s great game”, *New Statesman*, 14 January 2008, pp. 28-30.

25) Kenneth Katzman, *Afghanistan: Post-Taliban Governance, Security,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14, 200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ashington, DC, p. 10.

26) Charles G. Cogan, “Afghanistan: Partners in Time”, *World Policy Journal*, Vol. XXV, No. 3 (Fall 2008), p. 154.

27) Ayub and Kouvo, “Righting the course?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war on terror and the future of Afghanistan”, p. 651.

대리인들을 지방의 주요 관직이나 경찰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공직의 부정부패를 조장했다.²⁸⁾ 그 결과 각 지방의 카불 이탈현상과 탈레반 동조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실상 2002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의 국가원수로 재직해 오고 있는 카르자이의 이와 같은 정통성의 부족과 네포티즘(nepotism)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부족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치세력으로 탈바꿈한 다양한 종족들의 무장세력을 정권 내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르자이 정부는 그 반대 방향을 지향했다. 2001년 말의 정부 구성 이후 카르자이는 중앙정부의 힘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했지만, 정권의 강화를 위해서 정부 구성의 종족적 기반은 오히려 계속 좁혀왔다. 파슈툰족의 기용을 늘린 것이다. 그 결과 2009년 10월 말 현재 정부의 주요 요직 가운데 비파슈툰인이 책임자로 임명된 자리는 국가정보국(Intelligence Directorate, 국장은 타지크인인 암롤라 살레<Amrollah Saleh>) 뿐이며, 국방상, 내무상 등의 요직에는 대부분 파슈툰인이 기용되어 있다. 참모총장직의 경우 우즈베크인인 도스툼이 축출된 이후 타지크인인 비스밀라 한(Bismillah Khan)이 기용되었으나, 그는 파슈툰인 장관인 압둘 라힘 와르닥(Abdul Rahim Wardak)에게 보고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²⁹⁾

과도정부에 진출했다가 2004년 카르자이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밀려난 전직 군벌세력들은 의회로 진출했다. 2005년 9월, 치안상황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카불을 기반으로 한 엘리트와 농촌사회의 괴리가 발생하며, 카불 정권이 부정부패로 신뢰를 상실한 가운데 치러진 의회와 지방위원회 선거는 부정 시비로 얼룩졌다. 선거 결과 의회와 지방위원회에 전직 군벌세력이 대거 당선되었다. 2005년

28) 카르자이의 동생이자 칸다하르 주의회 의장인 아흐마드 왈리(Ahmad Wali) 카르자이는 아편 밀매를 통해 가장 거대한 부를 구축한 마약거물(drug baron)이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파키스탄을 방문한 카르자이 대통령이 국경을 넘어 침투하는 탈레반 세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파키스탄 정권의 무능력을 비난하자, 무샤라프는 카르자이에게 ‘집안단속’부터 먼저 하면서 모범을 보이라고 응수했다. Ali, “Afghanistan: Mirage of the Good War”, pp. 12-13. 실제로 아흐마드 왈리는 2009년 칸다하르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가운데 분명 최소 두 건의 타깃이 되었다. Katzman, *Afghanistan*, p. 10.

29) Katzman, *Afghanistan*, p. 13.

12월에 소집된 첫 의회(하원, Wolesi Jirga)에서 북부동맹 세력은 대선에서 카르자의 경쟁자였던 유누스 카누니(Yunus Qanooni)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2007년 4월 카누니와 북부동맹의 지도자 랍바니는 다른 정파들과 함께 ‘연합전선(United Front)’이라는 정당을 결성하면서, 의회 내 권력과 직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의 주지사들에 대한 영향력의 증강을 시도했다.³⁰⁾

군벌세력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어 정당한 정치적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의회에 전직 군벌출신들로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의문스런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방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개입 동기를 의심하고 또 탈레반에 우호적인 입장에 서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시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관찰해 온 저널리스트 캐시 개넨(Kathy Gannon)에 의하면,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계에는 손에 피를 묻힌 군벌 엘리트들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90년대 초 내전기에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던 잔인한 지도자들이 현재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의회에서 수염을 쓰다듬으며 앉아 있다는 것이다.³¹⁾ 그녀가 특히 비판하는 인물은 압둘 라술 사야프(Abdur Rasul Sayyaf)이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오사마 빈 라덴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불러들인 것은 무함마드 오마르가 아니라 사야프였으며, 미국이 토라보라(Tora Bora)에서 빈 라덴의 탈주 저지 작전을 그에게 맡긴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것이다.³²⁾ 2007년에는 의회가 전직 무자헤딘 사령관

30) Katzman, *Afghanistan*, p. 11.

3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February 2006, pp. 67-69; Kathy Gannon, *I is for Infidel: From Holy War to Holy Terror in Afghanistan-18 Years inside Afghanistan* (Cambridge: PublicAffairs, 2005), pp. 32, 54.

32) 사야프는 1980년대 페샤와르(Peshawar)에서 대소 향전에 가담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자유를 위한 이슬람동맹(Islamic Union or the Freedom of Afghanistan)’을 결성했고, 유창한 아랍어 실력으로 오사마 빈 라덴의 조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사야프의 병력은 수천 명에 달하는 하자라인들을 카불에서 학살했으며, 2001년 9월 마수드의 암살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2년 3월에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s in Afghanistan)이 시아파 무슬림인 하자라인들이 거주하는 카불의 서쪽 근교에서 사야프의 민병대가 약탈과 살해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Bannet R. Rubin, *The Fragmentation of Afghanista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2002), pp. 115, 318; Edwards, *Before Taliban*, pp. 266-271; Jon Lee Anderson, *The Lion's Grave: Dispatches from Afghanistan* (New York: Grove Press, 2002), pp. 194, 198-199; Amalendu Misra,

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르자이는 이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서명을 미뤄둔 채 있지만,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구 군벌들이 부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과거 손에 피를 묻힌 지도자들이 지방의 근거지를 그대로 둔 채 투쟁의 무대를 카블로 옮겨 ‘총성 없는 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9월 아프가니스탄 내무성과 미국의 관리들의 평가에 의하면 카르자이 정부의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전국의 약 30%에 불과하며, 3%는 탈레반이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또 다른 30%는 탈레반의 영향권이다. 그리고 나머지 40% 가량을 지방의 군벌과 토착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다.³³⁾ 탈레반 반군의 소탕작전을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담당하는 동안, 카블 정부는 중앙의 정치세력 대통합과 지방의 군벌세력 통합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 군벌과 토착세력들이 경제적 토대로 삼고 있는 아편재배와 마약밀매의 경우도 중앙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근절하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은 2001년 침공을 단행하면서 과거 탈레반이 이룩해 놓은 아편재배 금지정책을 철폐했으며, 2002년에는 카르자이의 ‘민주정권’에 대한 지지의 대가로 북부동맹 군벌들에게 아편생산의 재개를 허용했다. 실제로 이 조치로 32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서 곧바로 경작이 시작되었다.³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2006년부터 6개 주에서 양귀비를 제거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13개 지방으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지역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은 헬만드(Helmand), 자불(Zabul), 우루즈간(Uruzgan), 칸다하르(Kandahar), 파라(Farah) 그리고 잘랄라바드(Jalalabad)와 쿠나르(Kunar)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거대 마약딜러와 양귀비를 재배하는 거대 지주의 명단”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³⁵⁾은 결국 현재까지 마약 생산

Afghanistan (Cambridge: Polity, 2004), p. 173.

33) Katzman, *Afghanistan*, p. 14.

34) Pilger, “America’s great game”, p. 30.

35) “Poppy purge”, *Jane’s Intelligence Review*, Vol. 20, No. 2 (February 2008), p. 58. 아프가니스탄의 마약퇴치성(counter-narcotics) 장관대리 호다이다드 장군(General Khodaidad)의 인터뷰 기사.

세력의 확인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³⁶⁾

본(Bonn) 프로세스를 계기로 탄생한 현재의 카불 정부는 군벌세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거나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시도하기보다는 선거에 임박한 세력재편에만 주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1990년대 내전에서 잔혹한 작전으로 악명을 얻은 타지크족 군벌지도자 무함마드 파힘(Muhammad Fahim)은 2002~2004년 과도정부에서 부통령 겸 국방장관을 지냈고, 2004년의 대선을 앞두고는 카르자이와 결별, 카누니와 랍바니가 이끄는 ‘연합전선’의 핵심인물로 활동하던 자였다. 그러한 그가 2009년의 대선을 앞두고 부통령 후보로 카르자이와 손을 잡고 있다.³⁷⁾ 2004년의 대선에서 카르자이와 경쟁했던 하자라족 군벌 지도자 모하메드 모하케크(Mohammed Mohaqeq)와 우즈베크족 군벌지도자 도스툼도 카르자이와의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의 장기적인 안정과 국가 건설 그리고 발전의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시작되지 않은 전쟁이었던 점과 마찬가지로, 2001년 말 본 회의에서 시작된 현재의 카불 정부도 구체적인 정치사회의 통합과 안정 그리고 정치세력 재편을 위한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시작되지 않았다. 2001년 이후에도 소련의 점령이 남긴 유산 즉, 균열과 갈등의 구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³⁸⁾

36) 아프가니스탄의 안보불안 배경에는 부패·마약·군벌의 연계(nexus)가 존재한다. 군벌과 지방 세력의 부패는 아편생산과 공급을 만연하게 하는 요인이다. 헬만드 주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는 아편의 3분의 2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지역 인구의 약 93%가 마약경제에 연루되어 있다. 이는 탈레반이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ani D. Mullen, “Afghanistan in 2008: State Building at the Precipice”, *Asian Survey*, Vol. XLIX, No. 1 (January/February 2009), pp. 35-36.

37) Katzman, *Afghanistan*, p. 11.

38) 소련의 점령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하나인 헤크마티야르 그룹은 쿠나르(Kunar), 누리스탄(Nuristan), 난가르하르(Nangarhar) 등 카불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알카에다 및 탈레반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카르자이 정부와 정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tzman, *Afghanistan*, p. 24.

Ⅲ. 파슈툰 전쟁: 아프가니스탄-탈레반-파키스탄

2001년 이후 북부동맹의 군벌들과 NATO 연합군에게 카불을 빼앗긴 탈레반 정권의 잔여 병력은 ‘반군’으로 변신하여 카불과 연합군의 주둔지를 공격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 중반까지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병력은 우루즈간(2003년 8월과 12월, 2004년 3~7월), 쿠나르(2004/05년 겨울, 2005년 10월) 등지의 탈레반 소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탈레반 진압작전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탈레반의 ‘부활’을 알리는 반격이 시작되었다.³⁹⁾ 탈레반의 공격 방법도 변모하여 그 이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살 폭탄공격이나 급조폭발물(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의 매설, 투척 등이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탈레반의 저항은 ‘반(半)테러 반(半)게릴라’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변모된 탈레반 반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약 8천 명이 사망했으며, 160여 건의 자살 폭탄공격이 시도되었다.⁴⁰⁾ 2008년 1월에는 카불의 세레나(Serena) 호텔이 탈레반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4월에는 카르자이에 대한 암살 시도도 발생했다.⁴¹⁾ 2009년 7월에만 800건 이상의 IED 습격이 감행될 정도로 탈레반의 투쟁은 적극화하고 있다. 거의 2~3일에 한 건 정도로 발생하는 테러로 카불 정권의 신뢰는 추락하고 탈레반의 위상은 강화되었다. 2006년 이전에는 칸다하르와 몇 개의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탈레반의 활동영역도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파키스탄 탈레반과 정치적, 군사적 연계를 형성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불안은 물론 “의도하

39) 아프가니스탄 국내에서 탈레반의 공격이 급증하기 시작한 데에는 ‘파키스탄 변수’가 작용하고 있었다. 2004년부터 남부 와지리스탄(Waziristan)의 ‘파키스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연대하여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는 데 대해 파키스탄은 이들과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이 지역의 탈레반 창궐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던 파키스탄의 무사라프 정권은 파슈툰족과 군 내부의 탈레반 동조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토벌보다는 무마정책을 펴는 ‘더블 플레이’를 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 국내의 탈레반도 본격적인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이웅현, “탈레반의 기원과 궤적”, 『정세와 정책』(2007년 9월), p. 14.

40) Chris Sands, “Afghanistan: is it too late?”, *New Statesman*, 31 March 2008, pp. 32-33.

41) Mullen, “Afghanistan in 2008: State Building at the Precipice”, p. 29.

지 않았던 국경문제(unintended consequences of border politics)⁴²⁾와 파키스탄의 정세 악화까지도 초래하고 있다.⁴³⁾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점령은 군벌세력의 창궐과 아프가니스탄의 분열이라는 유산을 남겨놓았고, 분열된 아프가니스탄의 군벌들 사이의 내전은 ‘탈레반’을 산출했다. 조직의 탄생과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의 과정에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은 탈레반은 미국의 침공 후 ‘반군’(insurgency)으로 전락했고, 이제는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의 체제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거점과 활동무대는 대영제국이 무분별하게 획정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의 국경지역이다.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지역의 불안정은 영국, 소련,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서투른 정책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 인도 같은 지역 국가들의 패권경쟁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탈레반의 영향력이 상존하는 칸다하르의 북부, 헬만드의 북동부, 우루즈간의 남부, 자불의 서부, 파크티카, 파크티야, 가르데즈, 와르다, 로가르 등은 파슈툰족의 거주지역이며, 이 지역의 주민들은 같은 종족인 탈레반을 이종(異種)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⁴⁴⁾ 원래 1996년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할 때 타지크족을 중심으로 한 군벌을 축출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혼돈상태로 이끈 세력들을 공격, 내전상태를 종식시켰기 때문에 파슈툰인들에게는 탈레반 정권에 대한 묘한 노스텔지어가 있는데다가, 미군의 공폭(空爆)과 색출-체포작전(search-and-arrest mission)으로 민간인 피해자가 양산되면서 탈레반에 대한 향수는 더욱 강해졌다.⁴⁵⁾

42) Thomas H. Johnson and M. Chris Mason, “No Sign until the Burst of Fire: Understanding the Pakistan-Afghanistan Fronti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4 (Spring 2008), p. 43.

43) Katzman, *Afghanistan*, pp. 23-25.

44) 우루즈간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의 활동을 취재한 프리랜스 저널리스트 크리스 샌즈(Chris Sands)가 취재활동에 동반한 아프간인 통역에게 지역 주민의 탈레반에 대한 경계심의 정도를 묻자, 그는 “이 곳의 모든 사람들이 탈레반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탈레반”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Sands, “Afghanistan: is it too late?”, p. 33; 『옵저버(Observer)』지의 저널리스트 제이슨 버크(Jason Burke) 역시 와르다(Wardak) 주를 취재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누가 탈레반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Jason Burke, “Misreading the Taliban”, *Prospect*, November 2008, pp. 58-59.

45) Ali, “Afghanistan: Mirage of the Good War”, p. 15.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급증하고 있는 연합군

탈레반은 거의 우루즈간, 자불, 가르데즈, 파크티카 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길자이(Gilzai) 파슈툰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길자이 파슈툰족은 같은 파슈툰족 내에서도 보다 규모가 작은 듀라니(Durrani) 파슈툰과 역사적으로 경쟁적인 긴장관계에 있었다. 듀라니는 전통적으로 카불의 중앙권력을 장악해 왔으며, 지난 300년 동안은 거의 듀라니 출신이 왕위에 올랐다. 1721년 미르 와이스(Mir Wais)가 왕위에 올랐을 때를 제외하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세력 대부분이 타도의 타깃으로 삼았던 1978년 공산주의 ‘할크’ 정권의 누르 모함메드 타라키(Nur Mohammed Taraki)가 유일한 길자이 출신 대통령이였다. 그러나 그도 동료 아민(Amin)에 의해 살해되었고, 곧이어 발생한 소련의 침공에 의해 듀라니 출신 카르말(Karmal)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경쟁의 역사를 감안하면, 탈레반의 물라 오마르(Omar)가 길자이 파슈툰(그 가운데서도 호타키<Hotaki>족)이라는 사실이, 그의 강권통치에도 불구하고, 길자이 파슈툰에게는 정치적 위안이 되었을 수도 있다. 과거 파키스탄의 군 정보기관(ISI, Inter-Services Intelligence Directorate)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아프간인들의 대소련 항전그룹 7개 가운데 3개가 길자이 파슈툰인들이 주도하는 그룹이었다.⁴⁶⁾ 이 가운데는 듀라니 파슈툰인의 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조국 탈환’의 과정에 기여한 길자이 파슈툰족의 자존감은 듀라니 출신 카르자이를 수반으로 하는 카불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신념을 압도한다. 뿐만 아니라, 길자이 중심의 탈레반에게는 카불 정권이 ‘오래도록 간직해 오다가 상실했기 때문에 반드시 탈환해야 할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탈레반 반군 활동의 우선순위는 1994~1996년의 오마르처럼 북동쪽 카블로의 진군이나 카르자이 정부의 신속한 타도가 아

병력과 파슈툰 주민 사이의 폭력적 충돌은 탈레반 색출을 위한 연합군의 수색, 검문 행위가 ‘파슈툰규범(pashutunwali, 파슈툰족의 전통적 규범과 관행)’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비쳐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공폭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역시 아프가니스탄 주민의 카불 이반(離反), 탈레반 회귀를 부추기고 있다. Oleinik, “Lessons of Russian in Afghanistan”, p. 291.

46) 탈레반은 1996년 카불을 장악한 후에도 아프가니스탄 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자히르 샤(Zahir Sha, 듀라니 파슈툰) 전 국왕을 국내로 불러들이지 않았다. 반면 카르자이를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추대한 2001년의 본(Bonn) 프로세스에는 자히르 샤도 초대되었고, ‘국부’로 존경을 받았다. Johnson and Mason, “No Sign until the Burst of Fire”, pp. 75-78.

나라 칸다하르와 헬만드에서 듀라니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동남부에서 파키스탄의 북서쪽 국경지대(북서국경지방 <NWFP, North-West Frontier Province>, 발루치스탄<Baluchistan>, 연방종족자치지역<FATA,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로 퍼져 있는 산악지역은 파슈툰인들의 고향이며, 탈레반의 기원지이자 근거지이다. 파슈툰족은 자신들의 조국을 갖지 못한 세계 최대의 민족이기도 하다. 4천만 명 정도의 파슈툰인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1,200만(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약 40%를 상회), 파키스탄에 2,800만(파키스탄 인구의 약 15%)으로 나뉘어 거주하고 있다.⁴⁷⁾ 인도 독립 후 파키스탄의 이탈과 동서분열 등의 과정이 있었지만, 근원적으로는 영국이 이 산악지역에 그어 놓은 약 1,500킬로미터의 불명확한 국경선 때문에 파슈툰족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양쪽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파슈툰족을 통제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해 왔다. 대내적으로는 파슈툰과 발루치스탄의 민족주의 운동을 제어하고, 대외적으로는 인도가 통제하고 있는 캐시미르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⁴⁸⁾ 2005년부터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파키스탄이 국경지역의 탈레반에 대한 색출과 체포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국경을 차단하지도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⁴⁹⁾ 이슬라마바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과 파키스탄군 내부의 탈레반 동조자들의 존재 때문에 강력한 반 탈레반 전선을 구축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산악의 국경선에 장벽을 설치할 수도

47) Bruce Berkowitz, "The Great Game and the Endgame in Afghanistan", *Orbis*, Vol. 51, No. 1 (Winter 2007), p. 166.

48) 2008년 7월 카불 주재 인도 대사관이 반군의 차량폭탄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인 무관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은 이 공격을 IS1가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원조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외교적으로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위협을 느낄 만한 소지가 있었다. Mullen, "Afghanistan in 2008: State Building at the Precipice", p. 30; Cogan, "Afghanistan: Partners in Time", p. 154.

49) Johnson and Mason, "No Sign until the Burst of Fire", p. 83.

없다.

이와 같은 정치적, 현실적 요인들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거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파키스탄 탈레반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파슈툰을 주축으로 한 신세대 탈레반을 양성하고 있다. 칸다하르에서만 73,000명의 탈레반 병력이 훈련, 양성되고 있으며,⁵⁰⁾ 향후 20년 동안 매년 1만 명의 희생자를 내더라도 병력을 유지하면서 교전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¹⁾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인들이 파키스탄의 FATA와 NWFP로 꾸준히 넘어가, 난민 캠프를 설치하고 마드라사를 개설하며 파슈툰인들의 투쟁을 위한 충원을 거듭하는 한 탈레반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단기간 내에 패배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탈레반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NATO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식의 전쟁⁵²⁾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탈레반의 반군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위협을 느낀 카불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탈레반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2008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Abdullah) 왕은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정부 사이의 비공식 회담을 제안했고, 11월 중순 카르자이는 퀘타(Quetta)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라 오마르가 대화에 응한다면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탈레반의 지도자는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⁵³⁾ 탈레반의 최종목표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정치적 복귀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양쪽에 거주하는 파슈툰의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민족해방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탈레반’의 저항에는 파슈툰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민족분쟁과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의 자의적 국경획정에서 비롯된 근대적 투쟁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종교적 충돌⁵⁴⁾보다는 다인종 국가의 민족분쟁과 근대화 투쟁의 측면이 더 강한

50) Burke, “Misreading the Taliban”, p. 59.

51) Johnson and Mason, “No Sign until the Burst of Fire”, p. 87.

52) Cogan, “Afghanistan: Partners in Time”, p. 156.

53) Mullen, “Afghanistan in 2008”, pp. 34-35.

‘탈레반 문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슈툰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⁵⁵⁾

IV.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국가 건설(state building)’을 위하여(?)

미국은 소련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테러전쟁(War on Terror)’의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2001년 10월 7일부터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1979년 이후 20년 동안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폭격의 목표물도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 “200만 달러의 미사일을 10달러짜리 텐트에 포격하는 것이 상식으로 가능한 일인가”하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미국은 전쟁을 감행했다.⁵⁶⁾

2002년 1월 ISAF의 첫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입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작전대상에서 ‘국제전’의 무대로 바뀌었다. 이후 8년 동안 미국과 세계 각국은 맨해튼에서 살해된 2,740명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의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합군 병력은 작전 시간의 90%를 아프가니스탄 국방군(ANSF, Afghan National Security Forces)의 훈련, 민주주의 아프가니스탄의 토대가 될 사회 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지역재건활동 등에 할당하고 있고, 약 10%만 반군소탕 작전에 종사한다고 한다.⁵⁷⁾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국(34,800명), 영국(9,000명), 프랑스(3,095명), 캐나다(2,830명)를 비롯하여 42개국에서 총 71,030명의 병력이 파견되어 있으며,⁵⁸⁾ 이들은 ‘최종적

54) 탈레반 문제를 이렇게 보는 시각은 Seth G. Jones, “The Rise of Afghanistan’s Insurgency: State Failure and Jihad”,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4 (Spring 2008), pp. 7-40, 특히 pp. 26ff를 참조.

55) 이용현, “탈레반의 기원과 궤적”, p. 14.

56) Tanner, *Afghanistan*, p. 293.

57) William B. Ostlund, “Operation Enduring Freedom VIII”,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09, p. 2.

58)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and Afghan National Army Strength & Laydown”, Current as of 22 October 2009. <http://www.nato.int/isaf/docu/epub/pdf/placemat.html> (검색일: 2009년 10월 30일). 2008년과 2009년 초 21,000명의 병력을 증파했고, 2009년 12월 30,000명의 병력 증파를 결정

승리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49개 연합국과 8개 동맹국이 참전했던 제2차 세계대전도 6년 만에 종결되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이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8년 동안 지속되면서 ‘베트남화(Vietnamization)’의 암운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전쟁의 강도와 파괴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국 숫자로만 보면 2차 대전에 결코 뒤지지 않는 43개국(아프가니스탄 포함)이다. 가히 ‘세계전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전쟁의 목적과 성격도 변화되었다. 알카에다 케말과 탈레반 축출이라는 초기의 개전 목표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건설’로 바뀌었다. 그러나 변화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안보, 민주정부의 확립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구체적인 스케줄 부재와 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협조 결여로 난항을 겪고 있고,⁵⁹⁾ 2006년부터는 탈레반의 저항이 격화되었다.

2006년 8월과 9월에 걸쳐서 미국과 NATO 연합군은 자불과 님루즈(Nimruz), 칸다하르에서 일련의 작전(Operation Mountain Lion, Operation Mountain Thrust, Operation Medusa)을 전개하여 탈레반 소탕에 나섰지만 일시적인 승리에 그쳤고,⁶⁰⁾ 2007년에는 헬만드에서 아킬레스 작전(3월), 실리콘 작전(5월)을 통해 대대적인 교전을 감행했지만,⁶¹⁾ 헬만드에는 여전히 탈레반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2006년 이후 연합군은 탈레반에 대한 반격을 시작, 대대급 규모의 소탕작전에 주력했다. 그리고 미국은 사살된 탈레반의 시체를 세는 戰果計算(body counts)으로 복귀했고, 이는 베트남에서의 실패를 연상시키기도 한다.⁶²⁾ 2008년 초까지 6년 동안 1,200억 달러 이상의 전비를 지출하면서도 미국은 탈레반과 소모전을 지속하고 있다.⁶³⁾

했다. 기존의 국제연합군 39,000명과 미군 68,000명에 더해 미군 30,000명이 추가되면, 2010년 후반에는 137,000명의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Joe Klein, “Obama’s War”, *Time*, December 14, 2009, p. 18.

59) Clare Lockhart, “The failed state we’re in”, *Prospect* (June 2008), pp. 41-43.

60) Katzman, *Afghanistan*, p. 25.

61) Sands, “Afghanistan: is it too late?”, pp. 32-33.

62) Johnson and Mason, “No Sign until the Burst of Fire”, p. 88.

2008년의 상황은 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만들었다. 교전 중 발생한 미군 사상자가 150명을 넘어서면서 200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도로변의 폭탄공격(roadside bombing) 건수도 2,000건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전과는 달리 카불에서 가까운 로가르, 와르다, 카피사(Kapisa) 주에서 탈레반이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1월의 세레나 호텔 공격, 7월의 인도 대사관 차량폭탄 공격, 4월의 카르자이 암살 시도 등의 사건을 통해서 카불 시내도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6월에는 칸다하르의 사르포사(Sarposa) 형무소가 탈레반에게 장악되면서 대탈주사건(prison break)이 발생했고, 수백 명의 탈레반 수감자들이 도주했다. 2009년 2월에는 카불의 사법성 건물이 반군의 공격으로 파괴되면서 20명이 사망했다.⁶⁴⁾

결국 2008년 초 미국은 동맹국들의 병력 증파를 요청하는 한편, 자국 해병대 3,200명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추가 파병했다. 2008년 4월의 NATO 정상회담 후에는 NATO군 병력 1,800명이 추가되었으며, 미국은 2008년 말까지 4,000명의 병력 증파를 승인했다.⁶⁵⁾ 사실상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군 병력의 숫자가 아프가니스탄 인구수 대비(對比)에 있어서 결코 높은 편은 아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의 평화유지군 병력의 인구 대비가 각각 1:48과 1:58이었던 반면,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초기 3년 동안 1:2,000이었다가 미군과 연합군의 증강으로 현재는 1:1,00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⁶⁶⁾ 2001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온 아프가니스탄 정규군(ANA) 병력 8만 명도 인구 대비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국가들 가운데 최저비율에 해당한다.⁶⁷⁾ 즉 군사적인 관점에서

63) ISAF의 대변인 카를로스 브랑코(Carlos Branko) 준장의 주장에 따르면 2007년에 연합군 사상자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연합군 병력 8,500명이 급증했기 때문이고, 전통적으로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대한 연합군의 작전이 추진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탈레반 공격의 70%는 아프가니스탄 전 국토의 10% 지역(주로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James Kitfield, "The Neglected Front", *National Journal*, February 9, 2008, p. 37. 그러나 연합군의 병력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반군의 공격에 대응할 연합군의 병력 부족 때문이며, 10%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탈레반 공격의 30%가 초래할 안보 불안과 심리적 공황상태를 생각하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64) Katzman, *Afghanistan*, p. 27.

65) Mullen, "Afghanistan in 2008", p. 32.

66) Johnson and Mason, "No Sign until the Burst of Fire", pp. 84-85.

보면 탈레반 반군과의 교전 및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에 필요한 연합군 병력은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둔군의 증강은 결국 카불 정권과 아프가니스탄 국민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더욱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탈레반 반군과의 폭력적 접촉과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끝없는 소모전’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탈레반의 재기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부정적이 된 국내 여론을 고려하여 ISAF는 2008년부터 전술의 변화를 시도하여 지상전보다는 공습과 공폭을 중심으로 반군 진압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 6월에는 처음으로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파슈툰족 거주지에 대한 폭격을 단행했다. 그러나 결국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내에서 분출하는 부정적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⁶⁸⁾

연합군 병력의 사상자가 증가하면서 ISAF의 42개 지원국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병력 증파를 거부하고, 자국 병사들의 작전지역과 임무의 성격들을 제한하기 시작했다.⁶⁹⁾ NATO군의 어떤 병력은 희생을 치러야 하고, 다른 병력은 교전 지역 이외에 주둔하는 상황이 연합국의 단합(unity)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0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캐나다가 병력의 철수를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과 NATO는 전반적인 안보전략 재조정을 위해 지휘부를 재구성해야 했다. 별도의 부대로서 독자성을 유지해 오던 미군의 OEF(Operation Enduring Freedom) 임무수행 부대를 포함한 모든 미군 병력을 NATO가 이끄는 ISAF 사령부 휘하로 편입시켰다.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병력배치의 융통성을 제공한다는 군사적 목적⁷⁰⁾과 함께 서방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작용했다. 그러나 전쟁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⁷¹⁾

67) Mullen, "Afghanistan in 2008", p. 30.

68) Mullen, "Afghanistan in 2008", p. 32.

69) Kitfield, "The Neglected Front", p. 36.

70) Mullen, "Afghanistan in 2008: State Building at the Precipice", p. 34.

71) 헬만드의 치안 확립과 탈레반 소탕작전에 임하고 있는 영국군이 뚜렷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자 영국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참전에 대한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 국방장관 아인스워스(Bob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자립적 안보능력의 확보 작업 즉, 아프가니스탄 군사개혁의 지원은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 2002년에 본(Bonn) 조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성립된 UNAMA(UN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와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가 카불을 벗어난 지역에 ISAF 병력을 배치할 것을 제의했을 때, 미국은 이를 거부하여 UNAMA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노정할 적이 있다. 이후 UNAMA의 역할 강대화를 우려한 참전 강대국들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건설’ 역할을 분담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군(ANA)의 건설과 개혁을 지원하고, 독일은 경찰개혁을 담당했으며, 이탈리아는 사법개혁을 그리고 영국은 아편재배와 마약거래 규제를 담당했다.⁷²⁾

미국은 2003/04 회계연도에 ANA 예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했지만, 그 대부분이 카불 정부를 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여국(donor)이 통제하는 정부 예산 외 방식(external budget)으로 제공되었다. 미국은 탈레반 및 알카에다와 교전하는 아프가니스탄 민병대(militias)에게도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⁷³⁾ 자립적 안보능력을 보유한 민주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가 보호받아야 할 국가의 국내 정치적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7월 현재, 아프가니스탄군은 야전군 63,000명, 훈련 중인 예비병력 9,000명 등 총 7만 2천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종적으로 균형 잡힌 15개 여단 병력이 카불, 가르데즈, 칸다하르, 헤라트 그리고 마자르-이-샤리프에 공군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안보 확립을 위한 작전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병력으로 산정하고 있는 목표치인 13만 4천 명의 절반 정도

Ainsworth)는 이를 ‘패배주의(defeatism)’이라고 비난하면서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즉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도 “힘들고 기나긴 싸움이 될 것(It is a tough fight, and a long way from over.)”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New Statesman*, 17 August 2009, p. 22.

72) 이와 같은 주도국(lead nation approach) 접근법은 카불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연합국 사이의 정책 조율을 방해함으로써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가 담당한 사법개혁은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Ayub and Kouvo, “Righting the course?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war on terror and the future of Afghanistan”, p. 652.

73) Astri Suhrke, “Democratizing a Dependent State: The Case of Afghanistan”, *Democratization*, Vol. 15, No. 3 (June 2008), p. 635.

에 불과하다. 더욱이 적절한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 제도(military apparatus)와 부대 하위 편제(sub-units)는 여전히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탈레반 게릴라가 월 300달러 정도의 보수를 제안받는 데, 반해서 아프가니스탄군의 병사가 월 70달러 정도의 봉급을 받는 한 병력 충원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⁷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한 262억 달러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군의 건설과 개혁을 위해 집행된 금액이 172억 달러(66%)로 가장 많다. 그 밖에 77억 달러(29%)가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쓰였으며, 13억 달러(5%)는 행정(governance), 법치(rule of law),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국가 건설’ 부문에 사용된 액수의 두 배 이상이 ‘군사력 강화’에 사용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군의 작전을 위해서 사용된 예산액이 1,464억 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⁷⁵⁾ 과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건설”을 위한 진지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진다.⁷⁶⁾

1840년대 초 영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멸했을 때 웰링턴 공(Duke of Wellington)은 아프가니스탄에 관해서 “소규모 병력이 가면 섬멸당할 것이고, 대규모 병력이 가면 아사(餓死)할 것(A small army would be annihilated and a large one starved.)”이라는 경고를 발한 적이 있다.⁷⁷⁾ 그리고 1960년대 미국의 웨스트모어랜드(Westmoreland) 장군이 베트남에서 소모전을 펼치고 있을 때 키신저(Henry Kissinger)는 “게릴라들은 지지 않으면 이기는 것이고, 정규군은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The guerilla wins if he does not lose; the conventional army loses if it does not win.)”이라는 전략적 명언을 남겼다. ‘베트남전쟁’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이 이 두 전략가의 경구(警句)를 극

74) Samuel Chan, “Sentinels of Afghan Democracy: The Afghan National Army”,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2009, p. 27, 32.

75) Chan, “Sentinels of Afghan Democracy: The Afghan National Army”, p. 28.

76) 2005년 5월 워싱턴과 카불은 아프가니스탄에 대규모 미군병력을 영구히 주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기지(Base) 조약을 체결했다.

77) John Sweeney, “The killing fields”, *New Statesman*, 27 October 2008, p. 50.

복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전쟁의 안개(fog of war)가 너무 짙다.

V. 결론 및 전망

러시아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분열된 지하드 전사들을 낳았고, 영국인들은 분단된 파슈툰인들을 남겼으며, 미국은 정통성이 결여된 카불 정권을 남겼다. 분열된 지하드의 전사들은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을 불러들였고, 탈레반은 미국인들을 불러들였으며, 미국인들은 세계 41개국을 불러들였다. 영국은 남아시아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을 식민지배의 유산으로 남겨놓았고,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북부동맹과 탈레반의 갈등을 지역패권정치의 유산으로 남겨놓았으며, 탈레반은 서방국가들과 그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대서방 항전의 유산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 개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와 ‘패권’정치의 산물이며,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발생한 것들이다.

프레드릭 로버츠(Frederick Roberts)의 통찰력⁷⁸⁾을 존중하여 외국 군대가 전면 철수하고 민주주의 국가 아프가니스탄의 재생을 아프간인들의 손에 맡겨 두면 탈레반을 비롯한 세력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거나 내란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을 버텼던 러시아인들의 인내심을 본받아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서 카불 정권의 안보능력을 강화하려 하면 외세를 혐오하는 아프간인들의 지속적인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면 개입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전면 철수, 양자 사이의 회색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끝없는 소모전’과 ‘점증하는 출혈’ 뿐일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관여하고 있는 세계의 국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다투는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발칸화(Balkanization)를 막고자 한다면, 미국, 영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인도

78) 주 2) 참조.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국까지 참여하는 회의체를 만들어 참여국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기능을 보장, 지지하고, 인종적·종교적 다양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⁷⁹⁾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카불과 탈레반의 대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 국가들도 이를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카불의 위정자는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정치와 국내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과 일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카르자이가 수행하고 있는 통합의 전쟁이나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 건설’의 전쟁은 모두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출구전략(exit strategy)’과 ‘승리’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더 많은 시간과 병사를 잃었다. 카불과 워싱턴은 러시아인들이 추구했던 “전쟁을 끝내지 않는 방법(How not to end a war)”을 분석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⁸⁰⁾ 현재 상황에서 카르자이는 카불을 독점할 수 없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덤 위의 평화를 쟁취할 수 없다. 서로 얽혀 있는 세 개의 갈등이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로츠키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전쟁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we may not be interested in this war, but this war is interested in us*)”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면, 우선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덕적, 정신적 지원부터 제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심과 지원은, 30년 동안의 비극적인 내전, 지역

79) Ali, “Afghanistan: Mirage of the Good War”, pp. 21-22.

80) Sebestyen, “How not to end a war”, p. 30.

국가들의 간섭 그리고 대테러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대 중앙 아시아 문명의 숨결과 수십 세기에 걸친 동서 교류의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인류의 박물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논문 접수 : 2009년 11월 25일
논문 수정 : 2010년 1월 4일
게재 확정 : 2010년 1월 5일

참고문헌

1. 이웅현, 『소련의 아프간 전쟁』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년)
2. 이웅현(역),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서울: 전략과문화, 2007년)
3. 이웅현, 「탈레반의 기원과 궤적」, 『정세와 정책』 (2007년 9월), pp. 12-14.
4. Ali, Tariq. “Afghanistan: Mirage of the Good War”, *New Left Review*, Vol. 50 (March/April 2008), pp. 5-22.
5. Anderson, Jon Lee. *The Lion's Grave: Dispatches from Afghanistan* (New York: Grove Press, 2002).
6. Ayub, Fatima and Kouvo, Sari. “Righting the course?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war on terror and the future of Afghanistan”, *International Affairs*, Vol. 84, No. 4 (2008), pp. 641-657.
7. Berkowitz, Bruce. “The Great Game and the Endgame in Afghanistan”, *Orbis*, Vol. 51, No. 1 (Winter 2007), pp. 165-174.
8. Burke, Jason. “Misreading the Taliban”, *Prospect*, November 2008, pp. 58-59.
9. Chan, Samuel. “Sentinels of Afghan Democracy: The Afghan National Army”,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2009, pp. 25-40.
10. Cogan, Charles G. “Afghanistan: Partners in Time”, *World Policy Journal*, Vol. XXV, No. 3 (Fall 2008), pp. 153-156.
11. Dobrynin, Anatoly. *In Confidence: Moscow's Ambassador to America's Six Cold War Presidents* (New York: Random House, 1995).
12. *Documents From the U.S. Espionage Den*, Vol. 29.
13. Duffy, Brian. “Spiraling Into a Lower Part of Hell”, *U. S. News & World Report*, June 12, 2006, p. 10.

14. Edwards, David B. *Before Taliban: Genealogies of the Afghan Jiha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15. Gannon, Kathy. *I is for Infidel: From Holy War to Holy Terror in Afghanistan-18 Years inside Afghanistan* (Cambridge: PublicAffairs, 2005).
16. Grey, Stephen. "Afghanistan: The fog of war", *New Statesman*, 17 August 2009, pp. 17-21.
17. Holt, Frank L. *Into the Land of Bones: Alexander the Great in Afghanist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18. Johnson, Chalmers. *The Sorrows of Empi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4).
19. Johnson, Thomas H. and Mason, M. Chris. "No Sign until the Burst of Fire: Understanding the Pakistan-Afghanistan Fronti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4 (Spring 2008), pp. 41-77.
20. Johnson, Thomas H. and Mason, M. Chris. "Understanding the Taliban and Insurgency in Afghanistan", *Orbis*, Vol. 51, No. 1 (Winter 2007), pp. 71-89.
21. Jones, Seth G. "The Rise of Afghanistan's Insurgency: State Failure and Jihad,"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4 (Spring 2008), pp. 7-40.
22. Katzman, Kenneth. *Afghanistan: Post-Taliban Governance, Security,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14, 200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ashington, DC.
23. Kitfield, James. "The Neglected Front", *National Journal*, February 9, 2008, pp. 34-39.
24. Lockhart, Clare. "The failed state we're in", *Prospect (June 2008)*, pp. 40-43.
25. Misra, Amalendu. *Afghanistan* (Cambridge: Polity, 2004).
26. Mullen, Rani D. "Afghanistan in 2008: State Building at the Precipice", *Asian Survey*, Vol. XLIX, No. 1 (January/February 2009), pp. 28-38.
27. Oleinik, Anton. "Lessons of Russian in Afghanistan", *Society*, Vol. 45 (2008), pp. 288-293.
28. Ostlund, William B. "Operation Enduring Freedom VIII",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09, pp. 2-20.
29. Pilger, John. "America's great game", *New Statesman*, 14 January 2008, pp. 28-30.
30. Rashid, Ahmed. *Descent into Chaos: The U.S. and the Disaster in Pakistan, Afghanistan, and Central Asia* (New York: Penguin Books, 2008).
31. Rubin, Bannet R. *The Fragmentation of Afghanista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2002).
32. Sands, Chris. "Afghanistan: is it too late?", *New Statesman*, 31 March 2008, pp. 32-33.
33. Sebestyen, Victor. "How not to end a war", *New Statesman*, 17 August 2009, p. 30.
34. Singh, Iesha. "Exploring issues of violence within the recent context of the Hazarajat, Afghani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0, No. 2 (2001), pp. 195-228.
35. Suhrke, Astri. "Democratizing a Dependent State: The Case of Afghanistan", *Democratization*,

- Vol. 15, No. 3 (June 2008), pp. 630-648.
36. Sweeny, John. "The killing fields", *New Statesman*, 27 October 2008, pp. 50-51.
37. Tanner, Stephen. *Afghanistan: A Military History from Alexander the Great to the Fall of the Taliban* (Cambridge: DA Capo Press, 2002).
38. "Afghanistan: facing up to the facts and figures", *New Statesman*, 17 August 2009, p. 28-29.
39. "Poppy purge", *Jane's Intelligence Review*, Vol. 20, No. 2 (February 2008), p. 58.
40. *Far Eastern Economic Review*
41.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42. *The Korea Herald*
43. *Time*
44. ЦХСД(러시아 현대문서관), Фонд 89, Пер. 14, Док. 25.
45.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and Afghan National Army Strength & Laydown. Current as of 22 October 2009. Available: <http://www.nato.int/isaf/docu/epub/pdf/placemat.html> [2009, October 30].